

전남도, 국내 첫 '혼합연료 해상실증선' 건조

목포 삼진산단서 강제 절단식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본격화
기술개발·상용화 먹거리 육성

조를 위한 강제 절단식(스틸 커팅)을 지난 16일 목포 삼진산단 한국메이드 1공장에서 진행했다. 강제 절단식은 선박 건조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행사로, 전남도가 추진하는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친환경 혼합연료는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연료와 기존의 연료를 혼합 연소에 혼합비를 만큼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연료다. 해상실증선은 길이 80m, 무게 2,600t 규모로 건조한다.

친환경 대체연료의 선박 탑재성과 운용신뢰성·안정성 검증은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 혼소기술 기반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개발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을 실험하고 검증한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목포시가 지원하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주)KTE, (주)산엔지니어링, (주)동선박설계, (주)리에스엔디 등 4개 기업이 관련기술을 개발

하고 (주)한국메이드가 선박을 건조한다. 전남도는 각국이 겪는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선박 엔진과 기자재 개발 등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에서 운항하는 연안선박은 91척으로 전국의 55%를 차지한다. 어선도 2만7,000여척으로 전국의 41%에 이른다. 이에 전남도는 정부의 그린뉴딜과 그린십-K 정책에 부응해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확대를

위해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구축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십-K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친환경선박'을 의미한다. 특히 오는 10월 목포 남항 일원에 '이동식 전원 공급시스템 충전시험동'과 '친환경연료연구동' 등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연구거점을 착공하면 친환경선박 산업이 새로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일기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해상실증선 건조는 해상테스트베드 역할을 톡톡히 할 뿐 아니라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가 국내 최초로 선박용 친환경 혼합연료 해상실증선을 건조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혼합연료 해상실증선 건



전남도, 태풍 '난마돌' 대책회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오후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14호 태풍 '난마돌' 복상에 따른 예상 진로, 영향범위, 특성 등을 파악하고 실·국별 대처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 문산마을 에너지전환 거점센터 조성

시, 10곳까지 확대

광주시는 18일 "시민 주도형 에너지전환을 위해 신규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5곳을 추가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광주형 에너지전환마을 주민들은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및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전환 운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한다. 올해 가장 먼저 문을 연 북구 문흥동 '문산돌돌 에너지센터'는 지난 16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산돌돌 에너지센터'에는 옥상 태양광, 홍보관 및 에너지전환마을 자료, 제로웨이스트샵 등이 조성됐다. 광주시는 9월 중 남구 사직마을, 서구 발산마을, 광산 수완마을이 차례로 개소식을 진행한

다. 10월 중 동구 지산마을 거점센터가 최종 개소되면 광주시는 10개의 에너지전환마을을 거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김광진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에서 시작된 마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나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도, 21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

전남도가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57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독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4.9명으로 결정됐지만 지난 16일 5.1명으로 신고돼 방역당국이 3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전남도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난해보다 1주일 앞당겨 실시기로 했다. 접종 초반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대상자별 접종 기간을 구분하고, 태어나 처음으로 독감 백신을 맞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우선 접종한다.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는 21일부터, 임

신부는 10월5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12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전남도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50~64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만2,000명에 대해서도 무료 접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접종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에서 위탁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임채민 기자

"호남고속도 광주구간 서비스 5년 연속 나제"

조오섭 "개선 사업 적극 나서야"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동광주~산월)이 전국 고속도로 서비스등급 평가에서 5년 연속 나제점을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정책 개선 예산투입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량 조사 결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용봉, 용봉~서광주, 서광주~동림, 동림~산월 등 4개 구간의 서비스 수준이 도로별 적정 교통량 6단계(A~F) 중 F등급을 받았다. 고속도로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4차로에서 일평균 8만대를 초과하면 F등급을 받는다. 광주를 관통하는 구간들은 2017년부터 매년 일평균 10만대 이상을 유지하다 지난해 들어 10만7,546대를 넘어섰다. 특히 서광주~동림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1차로당 일평균 교통



량 상위 5개 구간에 포함될 정도로 정체가 심각했다. 도로공사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선정하고 3년 단위로 고속도로 교통정책 개선계획을 세워 2021년까지 89조8,517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15년간 투입된 주요 노선별 예산은 수도권 제1순환선 40조2,282억원, 경부선 27조929억원, 중부선 13조1,898억원 등이다. 반면, 호남고속도로는 2,086억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의 193분의1 수준에 그쳤다. 조 의원은 "고속도로 교통 정체는 수도권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이유로 예산도 수도권 중심에 집중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성과 전무"

정다운 시의원 "실적없는 홍보만"

SNS상 허위뉴스, 가짜사실 유포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법률지원제도인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운 의원(민주당·북구2)은 지난 16일 기획조정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이 낮은 인지도와 높은 문턱으로 인해 현재까지 접수 1건을 제외하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제시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활성화 방안을 보면 2020년 주요 홍보실적 11회, 접수현황 1건 등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또 제도 운영확장 방안으로 기존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과 필요시 조례 세부지원내용 검토·개정하는 방안을 계획했으나 실제로 추진된 결과는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광주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전입 시장 한 사람을 위한 법률지원단이었다"며 "이를 감추기 위해 일반 시민을 위한 법률지원단이라고 실적 없는 홍보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강기정 시장의 지시로 법률지원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김용현 기자

M 전남매일 | 장애인 학대 신고 캠페인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을 때릴 때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장애인학대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1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2 조사를 합니다.
- 3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 4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장애인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design by 소스컴퍼니